

대중소기업간 낙수효과의 이론과 실제

홍운선

2018. 12. 17

- I. 낙수효과에 관한 정의와 접근방법
 - II. 기존 통계를 활용한 거시적 · 산업별 분석
 - III. 기업간 거래관계를 활용한 미시적 분석
 - IV. 정책방향 : 대기업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 [부록] 국내외 낙수효과 선행연구



I

낙수효과에 관한 정의와 접근방법

Making the Future
For Success in Technology & Business

I. 낙수효과에 관한 정의와 접근방법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정의

낙수효과

- **낙수효과의 정의**
 - 부유층의 투자, 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부양효과로 나타나는 현상
 - 대기업이나 부유층 지원정책이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富가 저소득층에 서서히 떨어져 내려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가설
 - 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
 - (일본) 2014년 새로운 언어, 유행어 대상 후보 50개 언어에 선택됨
- **낙수효과란 용어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
 - 1896년 7월 9일 윌리엄 브라이언
 - ✓ 미합중국 민주당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시작
 - 1904년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
 - ✓ 유행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세운 가설에서 출발 →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 는 뜻. 상층의 부가 충분히 축적되면 아래 계층으로 자연스럽게 혜택이 돌아감
 - 1930년대 월 로저스
 - ✓ 대공황 당시 미국의 제31대 후버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 정책을 비교면서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를 고대한다" 고 언급한 것에서 출발
- **낙수효과의 경제철학**
 - 낙수효과는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 하는 경제철학에 기반
 - 낙수효과가 원활하게 작동할 경우, 경제성장과 분배 문제 해결이 가능. 반대의 경우 심각한 양극화 초래

분수효과

- **분수효과의 정의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개념)**
 -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생산 및 투자활성화로 이어져 전체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
 -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증가는 소비 증가로 귀결
- **분수효과의 경제철학**
 - 소득의 크기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이 상이하다는 케인즈경제학에 기반
 -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핵심. 이를 성장발판으로 삼는다는 취지. 복지재원을 부유층에 대한 시금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
 - 케인즈 이론을 분수효과와 동일시. 경기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의 구심점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득 증대에서 발견
 -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유발되는 '소득증대 → 소비증대 → 생산증대 → 소득증대' 라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마치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 부유층에게도 혜택으로 귀결
- **분수효과에 기반한 정책**
 - 민주당이 주로 중점을 두는 정책
 - 1993년 1월 빌클린턴 행정부는 낙수효과 이론을 허구로 판단하여 폐기
 - IMF는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을 폐기

I. 낙수효과에 관한 정의와 접근방법

- 낙수효과의 논리적 근거: 전체 효용합을 극대화하면 저소득층의 소득도 상승

- 낙수효과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하며 절대적인 소득 증가의 시각에서 접근
 - ✓ 지니계수가 상승해도 자유경쟁과 국제 무역에 의해 빈곤층을 포함한 전체 '소득이 올라간' 라고 설명
- 이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등 주로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기득권 이익의 비호나 증대를 추구하는 근거로 사용

- OECD(2014)

-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지난 30년 동안 가장 크게 나타남
 - ✓ 이러한 소득 격차의 추세적 확대는 경제성장을 대폭 억제시킴
- 소득격차의 전반적인 확대는 상위 1%의 초부유층에 의해 견인되지만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되는 저소득층
- 격차 성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빈곤층 뿐 만 아니라, 실제로는 하위 40%의 소득층에서도 나타남
 - ✓ 이는 사회적 배경이 빈곤한 사람들은 교육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 조세정책이나 이전 정책에 따른 격차완화 정책은 적절하게 설계되어 실시된다면 성장을 저해하지 않음

- MF(2015.5)

- '빈곤층과 중류단계의 소득 비중이 증가하면 성장률은 상승하고, 상위 20%의 소득 비중이 증가하면 성장률은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홍운선(2017), 낙수효과의 이론과 실제,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재인용

1. 낙수효과에 관한 정의와 접근방법

경제현상분석에서 활용되는 주요 접근방법

미시적(micro) 분석

- 개인이나 기업, 기관 등 개별 주체를 둘러싼 환경 분석에 초점

산업별(meso) 분석

- 부문들 간의 전후방 연계와 관련한 부분균형분석
- 구조분석에서 산업환경분석은 매우 중요한 요소
- 적합한 분석수단은 산업연관분석
- 산업연관분석에서는 산업내, 산업간 수직적, 수평적 연계 및 전후방 연관효과를 분석 가능

거시적(macro) 분석

- 경제시스템 차원에서 생산,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이를 형성하는 요인에 대한 집계변수 및 총량변수로서 경제전체 및 산업전반에 관한 일반 균형분석에 초점

선행연구

(Capron, 1992)

- 정부정책(R&D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3단계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matrix 형태로 구조화
 - ✓ 국가경제, 산업, 기업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분석
 - ✓ 산업조직 관점에서 시장행위(기업형태), 시장구조(산업구조, 산업집중도), 시장성과(국가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여 matrix 형태로 분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낙수효과 분석기법을 구조화하는 데에는 Capron(1992) 접근방식이 매우 유용
 - ✓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지원정책, 복지지원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확대 시행
 - ✓ 분석 수단은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함으로 위계에 맞는 적절한 분석 기법이 필요
 - ✓ Capron(1992)의 분석 틀이 적절한 분석기법을 찾는데 효과적
-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정부의 지원정책은 낙수효과를 얼마나 확대시키는 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이 필요
 - ✓ 분석대상 : 개별기업, 산업, 국가의 관점으로 구조화
 - ✓ 분석시각 : 기업 행위, 시장 구조, 시장 성과에 따라 분해하여 각 단계별 핵심 질문과 분석방법을 결합한 접근 필요

I. 낙수효과에 관한 정의와 접근방법

낙수효과에 관한 접근방법 : 분석 틀의 확립

경제정책 관점에서 살펴본 낙수효과 분석방법

정책 목표	정부의 지원정책은 낙수효과(또는 분수효과)를 얼마나 확대시킬 수 있는가		
경제 이론	micro economics	meso economics	macro economics
국가 경제 (분석 방법)	정책이 기업의 행태를 개선하는 정도 (시너지 효과) (전략적 파트너십 분석)	정책이 경제구조 변화 (산업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경제구조분석 또는 구조방정식 모형)	정책이 경제성장을 개선시키는 정도 (경제성장에 관한 거시모형)
산업 (분석 방법)	거래관계에서 기업의 전략적 대응 패턴 등 네트워킹 활동에 대한 정책효과 (기업의 경영전략 분석)	정책이 낙수효과 파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산업연관분석모델	정책이 산업경쟁력을 개선시키는 정도 수출 분석 모델
기업 (분석 방법)	정책이 원청업체/상위 협력업체 등의 개별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민간기업 활동조사)	낙수효과 확대정책이 산업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산업집중도 분석모델(허쉬만-허핀달지수, 자니계수)	낙수효과 확대정책이 개별기업의 생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생산성 분석

주된 분석방법

미시적 분석

- (장점) 정성적이고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며, 기업통계DB분석의 경우 재무구조변화 분석이 가능
- (단점) 설문조사는 주로 대기업-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에 한계. 기업간 거래관계가 매년 update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 자료가 부족

산업별 분석

- (장점) 대중소기업간 매출액, 고용,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파급효과측정 가능
- (단점) 개별기업 형태 파악이 어려우며, 파급효과가 항상 (+)로 측정, 산업연관표가 5년 단위로 작성되어 계수 값이 현실적으로 부적절

거시적 분석

- (장점) 경제성과 파락이 용이
- (단점) 거시경제성장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해석이 어려움
- (분석방법) 경기종합지수 활용하여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사이의 연관관계를 인과적으로 분석

■ **현실** 이론적 분석 범위와 정책적 목표사이의 불일치에 기인하여 많은 어려움 있음

→ 낙수효과 작동여부의 판단 기준 : 경제전반에 걸친 분배 개선이지만 이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거시경제전반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미시적 현상 사이의 불일치 발생 가능성도 존재. 관련 정보 해석 시 많은 어려움

II

기존통계를 활용한 거시적 · 산업별 분석

Making the Future
For Success in Technology & Business

1. 거시적 분석

경기종합지수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대-중소기업간 동조화 현상은 사라짐

1 분석개요

- ❖ 분석 방법 : 중소기업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대기업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통계를 활용한 경기요인의 인과관계 분석
 - ✓ 그랜저 검정 : 계량경제학에서 인과관계 분석 시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법
- ❖ 분석 기간 : ① 2003~2016년(전체), ② 2003~2009년(금융위기 이전), ③ 2010~2016년(금융위기 이후)로 구분

2 분석결과

- 결과 : 경기종합지수 결과, 금융위기 이후 대-중소기업간 동조화 현상은 사라짐

분석기간 : 2003~2016(전체)

후행시간(lag)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대기업	후행시간(lag)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대기업
1	0.02 *	0.03 *	7	0.11	0.24
2	0.01 **	0.69	8	0.07	0.52
3	0.00 **	0.67	9	0.00 *	0.14
4	0.16	0.86	10	0.01 *	0.23
5	0.04 *	0.95	11	0.03 *	0.44
6	0.02 *	0.28	12	0.03 *	0.34

- 일정 부분에서만 대기업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中企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원인변수로 작동

분석기간 : 2003~2009(금융위기)

후행시간(lag)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대기업	후행시간(lag)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대기업
1	0.05 *	0.05 *	7	0.02 *	0.01 **
2	0.00 **	0.62	8	0.02 *	0.02 *
3	0.00 **	0.00 **	9	0.01 **	0.01 **
4	0.00 **	0.00 **	10	0.00 **	0.00 **
5	0.02 *	0.05 *	11	0.00 **	0.00 **
6	0.00 **	0.00 **	12	0.00 **	0.01 **

- 대-중소기업간 상호 인과관계가 강하게 나타남

분석기간 : 2010~2016(금융위기 이후)

후행시간(lag)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대기업	후행시간(lag)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대기업
1	0.60	0.08	7	0.49	0.24
2	0.98	0.02 *	8	0.23	0.59
3	0.71	0.05	9	0.16	0.58
4	0.27	0.01 **	10	0.10	0.58
5	0.18	0.03 *	11	0.17	0.79
6	0.56	0.20	12	0.11	0.67

- 대기업-중소기업간 인과관계가 사라짐

자료 : 홍성철(2016), 중소기업 경기종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대중소기업간 산업연관분석

1 주요 결과(1)

-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유발계수가 훨씬 크게 나타남
- 제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대기업이 0.48('16)인 반면, 중소기업은 0.60('16)으로 나타남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비교

구분	2012			2013			2014		
	대기업(A)	중소기업(B)	편차(A-B)	대기업(A)	중소기업(B)	편차(A-B)	대기업(A)	중소기업(B)	편차(A-B)
제조업	0.45	0.57	-0.12	0.48	0.60	-0.12	0.50	0.62	-0.12
소비재	0.65	0.61	0.04	0.66	0.64	0.02	0.68	0.66	0.02
기초소재	0.32	0.52	-0.20	0.35	0.56	-0.21	0.37	0.57	-0.21
조립가공	0.55	0.60	-0.05	0.57	0.62	-0.05	0.59	0.64	-0.04
건설업	0.69	0.73	-0.04	0.71	0.74	-0.03	0.73	0.76	-0.03
서비스업(사회서비스 제외)	0.76	0.80	-0.04	0.78	0.82	-0.04	0.79	0.83	-0.04
도소매 및 운수	0.62	0.76	-0.14	0.64	0.78	-0.14	0.67	0.79	-0.12
소비자서비스	0.74	0.76	-0.02	0.75	0.78	-0.03	0.76	0.79	-0.03
생산자서비스	0.83	0.86	-0.03	0.84	0.87	-0.03	0.85	0.88	-0.03

주: 서비스업과 같은 경우, 사회서비스는 제외

자료: 이진면 외(2016), "2013년도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 작성과 분석", 산업연구원; 이진면 외(2017), "2014년도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 작성과 분석", 산업연구원

대중소기업간 산업연관분석

2 주요 결과(2)

- 예시 : 2016년 산업연구원에서 작업한 자동차 산업을 사례로
 - 자동차 부문 대기업이 생산을 한 단위 증가했을 경우 유발하는 생산효과는 대기업 부문에 집중
 - 2010년 71.3%에서 2013년 64.8%로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28.7%에서 35.2%로 증가

자동차부문 대기업의 생산유발효과

구분	2010		2012		2013	
	생산유발	비중	생산유발	비중	생산유발	비중
대기업	177.9	(71.3)	163.4	(66.1)	162.0	(64.8)
제조업	33.6	(13.5)	32.2	(13.0)	27.6	(11.0)
자동차	132.8	(53.2)	119.6	(48.4)	123.5	(49.4)
서비스	11.5	(4.6)	11.5	(4.7)	10.9	(4.4)
중소기업	71.7	(28.7)	83.9	(33.9)	88.0	(35.2)
제조업	41.0	(16.4)	42.9	(17.3)	46.4	(18.5)
자동차	11.4	(4.6)	21.5	(8.7)	22.6	(9.1)
서비스	19.3	(7.7)	19.5	(7.9)	19.0	(7.6)
전체	249.6	(100.0)	247.3	(100.0)	250.0	(100.0)

자동차부문 대기업의 수입유발효과

구분	2010		2012		2013	
	수입유발	비중	수입유발	비중	수입유발	비중
대기업	16.4	(55.9)	14.4	(47.0)	12.9	(46.1)
제조업	9.9	(33.6)	10.2	(33.5)	8.9	(31.8)
자동차	4.5	(15.5)	2.2	(7.3)	2.3	(8.3)
서비스	2.0	(6.8)	1.9	(6.2)	1.7	(5.9)
중소기업	12.9	(44.1)	16.2	(53.0)	15.1	(53.9)
제조업	8.7	(29.7)	11.2	(36.6)	10.5	(37.6)
자동차	1.6	(5.4)	2.5	(8.1)	2.2	(8.0)
서비스	2.6	(9.0)	2.5	(8.3)	2.3	(8.3)
전체	29.3	(100.0)	30.6	(100.0)	28.0	(100.0)

➢ 대기업 생산이 증가하여도 대기업 계열사로의 생산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의 생산은 수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2. 산업별 분석

3 주요 결과(3) : 아직은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분수효과보다 커

부가가치기준 대기업 파급 효과

(단위:조원)

	2010		2012		2013		2014	
대기업(직접)	297.7	(69.7)	327.9	(67.1)	333.4	(65.9)	345.7	(66.7)
제조업	152.7	(35.7)	167.4	(34.3)	171.1	(33.8)	175.1	(33.8)
소비재	11.6	(2.7)	13.8	(2.8)	14.2	(2.8)	14.3	(2.8)
기초소재	40.9	(9.6)	43.1	(8.8)	41.9	(8.3)	43.7	(8.4)
조립가공	100.2	(23.5)	110.6	(22.6)	114.9	(22.7)	117.0	(22.6)
서비스업	145.0	(33.9)	160.5	(32.8)	162.3	(32.1)	170.6	(32.9)
도소매,운수	32.0	(7.5)	33.5	(6.9)	33.5	(6.6)	35.8	(6.9)
소비자	18.2	(4.3)	19.5	(4.0)	19.7	(3.9)	20.1	(3.9)
생산자	94.8	(22.2)	107.4	(22.0)	109.2	(21.6)	114.6	(22.1)
대기업(낙수)	129.5	(30.3)	160.9	(32.9)	172.7	(34.1)	172.8	(33.3)
제조업	54.7	(12.8)	75.2	(15.4)	83.0	(16.4)	79.2	(15.3)
소비재	14.2	(3.3)	14.3	(2.9)	17.1	(3.4)	19.0	(3.7)
기초소재	25.2	(5.9)	33.6	(6.9)	38.1	(7.5)	35.7	(6.9)
조립가공	15.3	(3.6)	27.3	(5.6)	27.8	(5.5)	24.5	(4.7)
서비스업	74.8	(17.5)	85.7	(17.5)	89.7	(17.7)	93.5	(18.0)
도소매,운수	29.5	(6.9)	35.9	(7.3)	37.8	(7.5)	37.0	(7.1)
소비자	9.9	(2.3)	10.9	(2.2)	11.7	(2.3)	12.8	(2.5)
생산자	35.3	(8.3)	38.9	(8.0)	40.2	(7.9)	43.7	(8.4)
전체	427.2	(100.0)	488.8	(100.0)	506.1	(100.0)	51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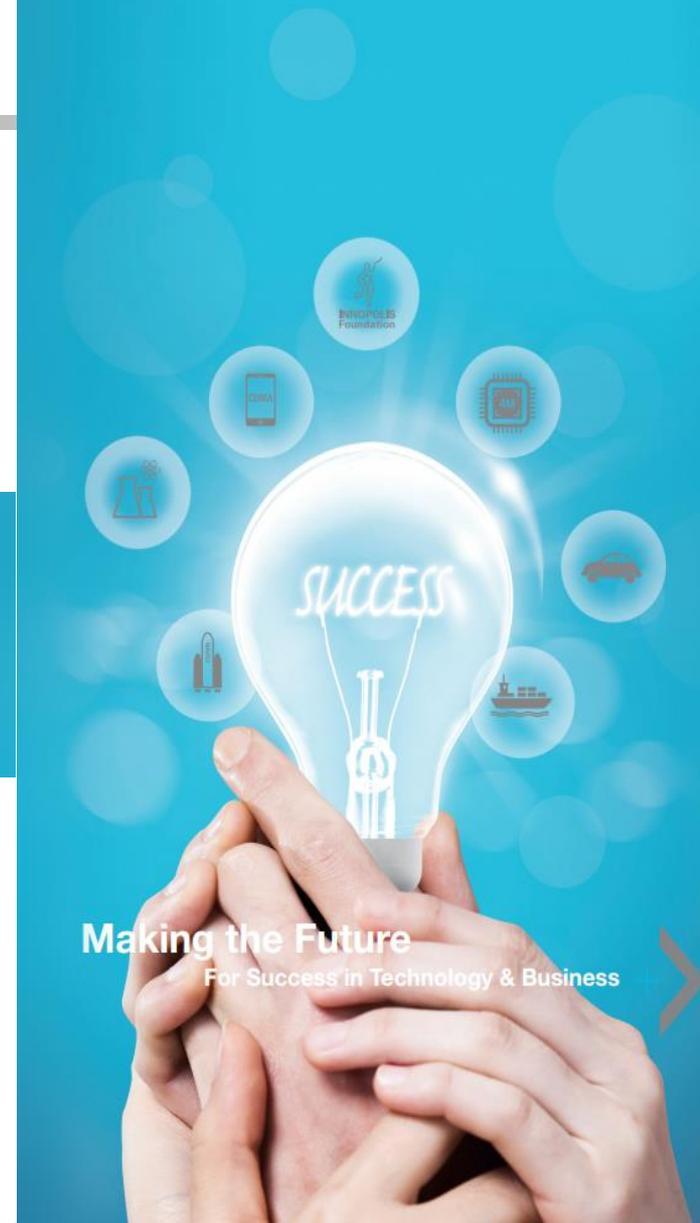
부가가치기준 중소기업 파급 효과

(단위:조원)

	2010		2012		2013		2014	
중소기업(직접)	333.4	(80.0)	359.7	(82.4)	373.2	(82.8)	388.1	(82.8)
제조업	98.9	(23.7)	105.7	(24.2)	108.9	(24.2)	114.1	(24.3)
소비재	27.2	(6.5)	29.1	(6.7)	30.2	(6.7)	32.9	(7.0)
기초소재	29.9	(7.2)	33.7	(7.7)	34.0	(7.5)	35.7	(7.6)
조립가공	41.8	(10.0)	42.9	(9.8)	44.7	(9.9)	45.6	(9.7)
서비스업	234.5	(56.3)	254.0	(58.2)	264.3	(58.7)	274.0	(58.4)
도소매,운수	73.2	(17.6)	79.8	(18.3)	83.4	(18.5)	82.3	(17.6)
소비자	44.6	(10.7)	48.4	(11.1)	50.4	(11.2)	53.1	(11.3)
생산자	116.7	(28.0)	125.8	(28.8)	130.4	(29.0)	138.6	(29.5)
중소기업(분수)	83.2	(20.0)	76.6	(17.6)	77.3	(17.2)	80.8	(17.2)
제조업	36.4	(8.7)	29.3	(6.7)	28.9	(6.4)	31.0	(6.6)
소비재	5.2	(1.3)	6.3	(1.4)	6.7	(1.5)	5.9	(1.2)
기초소재	19.0	(4.6)	15.7	(3.6)	14.4	(3.2)	15.1	(3.2)
조립가공	12.2	(2.9)	7.3	(1.7)	7.8	(1.7)	10.0	(2.1)
서비스업	46.8	(11.2)	47.3	(10.8)	48.3	(10.7)	49.9	(10.6)
도소매,운수	11.6	(2.8)	10.6	(2.4)	10.5	(2.3)	12.1	(2.6)
소비자	6.8	(1.6)	6.9	(1.6)	7.1	(1.6)	7.2	(1.5)
생산자	28.4	(6.8)	29.9	(6.8)	30.8	(6.8)	30.6	(6.5)
전체	416.6	(100.0)	436.3	(100.0)	450.4	(100.0)	469.0	(100.0)

III

기업간 거래관계를 활용한 미시적 분석



Making the Future
For Success in Technology & Business

III. 기업간 거래관계를 활용한 미시적 분석

기초 통계분석 및 낙수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1 분석모형

❖ Evans(1987a,b) 모형을 활용

❖ 협력기업의 기업성장식(매출성장식): 추정식에 대기업의 매출성장률 추가

❖ 분석에 활용한 식: $Growth_{i,t} = \beta_0 + \beta_1 \ln Size_{i,t-1} + \beta_2 \ln Age_{i,t} + \beta_3 DTR_{i,t} + \beta_4 CF_{i,t} + \beta_5 LGS_{i,t} + \sum_{j=1}^2 \delta_j D_j + u_i + \epsilon_{i,t}$

2 분석변수 현황

- 협력기업의 성장률(Growth): 협력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 기업규모(SIZE): 협력기업의 로그매출액
- 기업나이(AGE): 2015년 기준으로 협력기업의 창업일을 뺀 업력의 로그 값
- 부채변수(DTR): 기업의 재무구조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의 부채구조를 나타내는 부채변수(DTR) 활용
- 현금흐름(CF): 협력기업의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에 지표가 매출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 성장률(LGS): 상위 협력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 협력업체 더미: 거래금액을 고려하여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로 구분

3 분석변수 정의

변수명	의미	측정
Growth _{i,t}	로그 성장률	ln(매출액) _{i,t} - ln(매출액) _{i,t-1}
lnSize _{i,t-1}	기업규모	ln(매출액) _{i,t-1}
lnAge _{i,t}	업력	ln(연도-설립연도) _{i,t}
DTR _{i,t}	부채비율	[(유동부채+비유동부채)/자기자본]
CF _{i,t}	현금흐름	당기순이익/총자산
LGS _{i,t}	상위 협력기업의 로그 성장률	ln(상위기업의 매출액) _{i,t} - ln(상위기업의 매출액) _{i,t-1}
D _j	협력업체 더미	1차 협력업체이면, D1=1 아니면 0, 2차 협력업체이면 D2= 1 아니면 0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관측되지 않는 기업의 특성	
	시간 및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변하는 임의의 교란항	

거래관계가 길어질수록 낙수효과 약화

A 산업의 매출액 증가에 대한 낙수효과 추정결과

	전체	1차	2차	3차
Pooled OLS	0.282***	0.651***	0.281***	0.259***
	(0.0187)	(0.0488)	(0.0183)	(0.0209)
패널 모형 (Fixed effect)	0.282***	0.651***	0.281***	0.259***
	(0.0187)	(0.0488)	(0.0183)	(0.0209)

주1) 변수별 ()는 강건한 표준오차이며,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을 의미

2) LGS: 상위협력기업의 로그 성장률

자료 : 홍운선(2017), '낙수효과의 이론과 실제', 중소기업연구원

III. 기업간 거래관계를 활용한 미시적 분석

1 분석개요

❖ 표한형(2016)은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DB*를 활용하여 대표 위탁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간 공급사슬 분석

* 2014년 기준, 50,000여 개사의 판매처별 판매액과 재무정보

✓ 분석지표 : 대표 위탁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간 성장성과 수익성

2 분석결과

- 성장성 분석 결과 :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매출액 규모가 커지고 대형화
- 추정결과 : 원청기업의 매출액 증가는 1차 협력업체의 매출액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2차, 3차 협력업체로 내려갈수록 그 영향이 감소

수출대기업과 협력기업간 매출액 규모

(단위 : 억원, 배)

기업명	년도	원사업자	1차	2차	3차	대1차	1차/2차	2차/3차
A사	2000	182,300	506	84	55	360.3	6.0	1.5
	2014	430,500	1,885	209	126	228.4	9.0	1.7
B사	2000	342,800	345	112	60	993.6	3.1	1.9
	2014	1,378,300	917	159	103	1,503.1	5.8	1.5

-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간 매출액 격차는 확대된 반면, 2차협력업체와 3차 협력업체 간 매출액 격차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

원청기업 매출액 1% 증가에 따른 낙수효과

구분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A사	0.43%	0.05%	0.004%
B사	0.56%	0.07%	0.005%

- A사 원청업체 매출액 1% 증가→1차 협력업체 매출액 0.43% 증가, 이러한 효과는 2, 3차로 갈수록 크기가 감소
- B사 원청업체 매출액 1% 증가→1차 협력업체 매출액 0.562% 증가, 이러한 효과는 2, 3차로 갈수록 크기가 감소

자료 : 표한형(2016),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IV

정책방향 : 대기업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Making the Future
For Success in Technology & Business

IV. 정책방향: 대기업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자

분석결과

- 통계분석에 의하면 대기업-중소기업간 동조관계는 크게 약화
 - ✓ (대기업-협력업체) 1, 2, 3차로 내려갈수록 파급효과 크기 감소.
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대형화
 - ✓ (산업연관분석) 대기업의 고용 파급효과는 중소기업보다 현저히 낮음.
분수효과보다는 낙수효과가 큰 상황
 - ✓ (경기종합지수) 금융위기 이후 순환변동치의 대-중소기업간 인과관계는 사라지고, 디커플링 심화

정책방향성

-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 ✓ 고도성장과정에서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강하게 인식
 - ✓ 대기업은 우리나라 고도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향후 경제성장에도 큰 기여가 예상
-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보다 중요해지는 시대에서 대기업의 위상 약화는 불가피
- (향후 과제) 활력 있는 다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경제시스템 정착이 중요

따라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여 선순환 효과를 낳는 것이 중요과제



부록

국내외 낙수효과 선행연구

Making the Future
For Success in Technology & Business

국내 낙수효과의 긍정적 연구결과

번호	저자(연도)	분석방법	분석대상	분석기간	분석지표	주요 분석 내용	분석 결과
1	이병기(2012a)	-문헌연구 -실증분석(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패널분석)	-위탁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 DB -한국기업데이터 DB	2000~2010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 (+) - (+)
2	이병기(2012b)	-문헌연구 -통계분석 -사례분석		1991~2010	매출액 영업이익률, 고용규모별 부가가치 비중, 1인당 급여액, 자본장비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노조조직률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 (+) - (+)
3	박상용·신현안·홍은주(2013)	-문헌연구 -실증분석(회귀분석, 차이검정)	-삼성전자 및 28개 협력사 -KIS DATA	2003~2011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수익성: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수익률 -기타: 안정성, 활동성, 자본적 지출	-성장성 지표 -수익성 지표	- (+) - (+)
4	신현한·김소연(2014)	-문헌연구 -실증분석(다변량회귀분석, 강건성 분석)	-KED, KIS VALUE	2005~2012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매출액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이익률	-가설1)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거래관계는 협력업체의 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침 -가설2)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는 자산관리의 효율성에 양(+) 의 영향을 미침 -가설3) 협력업체의 대기업 매출비중은 협력업체의 자산효율성에 양(+) 의 영향을 미침	- (+) - (+) - (+)
5	조동근·빈기범(2014)	-문헌연구 -실증분석(처리효과 방법론)	-KED 기업 재무, 회계 DB 활용	2008~2011	-연평균매출액증감률, 연평균고정자산증감률, 연평균고용성장률	-가설1) 대기업에 대한 납품(매출 비중이 커질수록 종업원 수 성장률이 증가 (가설2) 대기업에 대한 납품(매출) 비중이 커질수록 매출액 성장률이 증가 (가설3) 대기업에 대한 납품(납품) 비중이 커질수록 고정자산 증가율이 증가	- (+) - (+) - (+)
6	이종욱·오승현(2014)	-문헌연구 -실증분석(기술통계, 패널회귀분석)	-네트워크론 관련 중소기업 간 거래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재무자료	2006~2011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투자액	-중소기업 영업이익에 대한 대기업 성과(수준변수) -(단순패널회귀분석) 중소기업 영업이익과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고용간 관계 -(다중패널회귀분석)중소기업 영업이익과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간 관계	- (+) - (+) - (+)

[부록] 국내외 낙수효과 선행연구_국내

국내 낙수효과의 부정적 연구결과

번호	저자(연도)	분석방법	분석대상	분석 기간	분석지표	주요 분석 내용	분석 결과
1	심상규(2011)	-문헌연구 -실증분석(회귀분석)	네트워크크론에 가입한 3,346개의 제조업 중소기업	2007-2009	-중소기업의 수익성 비율(매출총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대기업 매출비율(대기업 매출액/총매출액)	-(가설1) 중소기업의 대기업 판매비율과 매출총이익률은 음(-)의 관계를 가짐 -(가설2) 중소기업의 대기업 매출비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 역시 음(-)의 관계를 가짐	-(-) -(-)
2	박승록·최두열(2011)	-문헌연구 -실증분석(벡터자기회귀모형, 투자함수모형)	-투자시계열: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성장, 고용, 임금:한국은행공식통계	1991~2009	-국민소득, 취업자수, 대기업투자, 중소기업투자 -중소기업 투자, 대기업 투자, 국민소득, 취업자수, 임금을	-대기업 투자가 중소기업이나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시차 고려) -대기업 투자가 중소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시차 고려) -대기업 투자가 중소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효과 없음 -효과 없음 -효과 없음
3	김근수(2014)	-문헌연구 -실증분석(산업연관분석)	삼성, 현대자동차, LG+GS, SK, 롯데, 한진	1999, 2002, 2005, 2008, 2010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소유구조) -고용효과 : 수출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 유발계수(산업연관표)	-재벌의 소유구조 -부가가치 유발계수 -고용 유발계수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악화 -감소 -감소 -감소
4	홍장표·장지상(2015)	-문헌연구 -실증분석(연결망분석, 생산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KED DB(2011년 기준), 54,114사 기업간 자료	2011	-기업간 거래연관표 작성, 연결망 분석 -생산 및 고용 유발계수	-선도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비계열사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전자:(-), 자동차:불명확(-)
5	표환형(2016)	-문헌연구 -실증분석(연결망분석, 생산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KED DB(2014년 기준)	2014	-기업간 거래연관표 작성, 연결망 분석 -생산 및 고용 유발계수	-원청기업 매출액 증가가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영향 -협력업체 간 매출액 격차	-1차(+), 2차, 3차 점점 감소 -1차-2차간(+), 2차-3차(변화없음)

낙수효과 선행연구 - 해외(1)

1 긍정적 의견

■ 낙수효과의 논리적 근거: 전체 효용합을 극대화하면 저소득층의 소득도 상승

- 낙수효과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하며 절대적인 소득 증가의 시각에서 접근
 - ✓ 지니계수가 상승해도 자유경쟁과 국제 무역에 의해 빈곤층을 포함한 전체 '소득이 올라간' 라고 설명
- 이러한 논리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최고세를 인하 등 주로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기득권 이익의 비호나 증대를 추구하는 근거로 사용

■ 낙수효과는 공급측 경제학의 중심 사상. 미국의 공화당 행정부인 레이건 대통령(1981~1989), 부시대통령(1989~1992) 등에서 강조

-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 ' 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세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
- 부시 대통령 또한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

■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해 낙수효과 논쟁이 활발. 일부는 아베노믹스를 낙수효과 기반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飯田泰之(2014)은 경제상승국면에서 가장 먼저 자산가치가 반응하고 그 움직임이 파급되면서 경기가 호전. 다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체감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아베노믹스를 옹호
- 浜田宏一(2014)는 아베노믹스에 따른 결과로 낙수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힘
 - ✓ '아베노믹스 제1기에는 수출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주가 상승을 통해 자산 투자자들이 1차적인 수혜를 받게 되며, 단순노동자의 경우, 생산성 증대를 통한 기술진보 과정은 없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지연
 - ✓ 그럼에도 시간이 흐르면 시간외 임금 상승과 같은 형태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 파급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서민에게도 경제적 성과가 흘러간다고 설명
- 片岡剛士는 위와 아래의 양 방향에서 중간층으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
 - ✓ 완전실업률, 구인배율의 개선, 비정규직 임금 상승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위에서 중간층으로, 아래에서 중간층으로'의 경기 회복이 진행
 - ✓ 즉, 낙수효과 뿐 만 아니라, 분수효과도 함께 작동

■ (국내)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법인세율 최고한도를 25% -> 22%로 낮춘 정책이 낙수효과에 기반한 대표적인 정책

낙수효과 선행연구 - 해외(2)

2 부정적 의견

■ 낙수효과이론에 관한 비판적 시각: 소득 격차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

- ▶ 낙수효과이론은 개별 효용의 합계가 기존보다 커지지만 하면 바람직하다는 암묵적 가정을 전제로 함
 - ✓ 그러나 소득에 따른 화폐의 효용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 있음
- ▶ Joseph Stiglitz(2006)은 '낙수효과에 의해 성장이익이 자동적으로 사회 곳곳에 퍼진다는 전제는 경제이론과 역사경험에 반하는 것' 이라고 지적

■ 미국

- ▶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경기나 실업률은 개선되었지만 재정적자는 폭발적으로 높아져 빌 클린턴 정권까지 이어짐.
 - ✓ 이 시기에 경기는 회복되었지만 경기회복 요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 ▶ 1990년대까지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하위 20%에 속하는 세대의 실질소득 변화를 보면 1970년대에 2% 증가에서 1980년대에는 7.3%, 90년대에는 12.2% 증가, 2000년대 들어서는 성장이 멈추고 2009년에는 2000년 대비 8.4%나 감소하여 '낙수효과'는 소멸

■ OECD(2014)

- ▶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지난 30년 동안 가장 크게 나타남
 - ✓ 이러한 소득 격차의 추세적 확대는 경제성장을 대폭 억제시킴
- ▶ 소득격차의 전반적인 확대는 상위 1%의 초부유층에 의해 견인되지만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되는 저소득층
- ▶ 격차 성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빈곤층 뿐 만 아니라, 실제로는 하위 40%의 소득층에서도 나타남
 - ✓ 이는 사회적 배경이 빈곤한 사람들은 교육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 조세정책이나 이전 정책에 따른 격차완화 정책은 적절하게 설계되어 실시된다면 성장을 저해하지 않음

■ IMF(2015.5)

- ▶ 빈곤층과 중류단계의 소득 비중이 증가하면 성장률은 상승하고, 상위 20%의 소득 비중이 증가하면 성장률은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남

낙수효과 선행연구 – 해외(3)

2 부정적 의견

■ (일본) 神野直彦(2010), 中野剛志(2012), 大竹文雄(2010), 飯田泰之(2015), 田中(2016), 藤田(2015), 野口旭(2011)

- ▶ 神野直彦(2010)는 낙수효과이론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富는 사용에 의한 한계효용 극대화를 위해 소유한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富는 권력을 얻는 목적으로 소유되기 때문에 이론은 유효하지 않음
- ▶ 中野剛志(2012)는 낙수효과이론으로 격차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국가가 미국이지만, 미국에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R. B. Reich는 일부 부유층이 소비하는 것보다 다수의 중산계층이 소비하는 편이 소비 규모가 커진다고 주장
- ▶ 大竹文雄(2010)는 중산층이 많을수록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져, 중산층의 소비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어 안전하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
- ▶ 飯田泰之(2015)는 낙수효과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인위적으로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 이를 위해 다양한 분배 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가 필요
- ▶ 田中(2016)는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을 통한 낙수효과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
 - ✓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은 살포식 방만재정이며, 이전부터 내려오는 정치의 부(負) 유산도 있지만 적자 국채의 누적은 점점 누적되어 1,000조 엔을 넘어섬
 - ✓ 소비세 증세와 법인세 감세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배경에는 낙수효과가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였으나 실제 이러한 효과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함
- ▶ 藤田(2015)는 아베정권의 성장에 의한 지방 창생의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
 - ✓ 아베 정부는 2014년 지방 창생(지방 활성화)을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 ✓ 아베 정부는 낙수효과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 지방,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못함
- ▶ 野口旭(2011)는 낙수효과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유지
 - ✓ 지금까지 일본기업은 임금 유지, 종신고용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기업이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필요시 해고를 단행하면서 기업 수익이 개선. 즉, 기업 수익의 개선이 명목임금 개선으로 연결된다고 말할 수 없음
 - ✓ 임금 소득 생활자의 경우, 명목임금이 내려가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 주택 구입 등을 축소하게 됨. 그 결과, 기업의 수익이 확대되어도 개인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실제 대기업의 유동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의 설비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음

낙수효과 선행연구 - 해외(4)

2 부정적 의견

- 2015년 1월 28일 아베 수상은 '아베정권이 목표하는 것은 경제의 선순환 실현이며 지방 경제의 상승이라고 국회에서 답변. 이후 아베정권의 경제 정책 및 아베를 지지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은 낙수효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됨
- 田中(2015)는 통계를 활용하여 설비투자, 경기회복 국면에서 기업 이익과 임금을 분석하면서 낙수효과의 문제점 분석
 - ▶ 아베 수상은 디스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 선순환' 을 제창하고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 ✓ 낙수효과 전달통로 : 금융 완화, 엔저→수출산업의 수익 하락, 물가상승과 실질금리의 저하→임금증가·투자 증가를 유발→가계·중소기업에의 긍정적인 영향
 - ✓ 그러나 대기업의 기업 실적 개선이 임금증가→가계의 소비 증대, 기업의 생산, 설비투자 확대와 같은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음
 - ▶ (분석방법) 문헌연구, 통계분석
 - ▶ (분석지표) 국내총생산 추이, 가계소비지출의 전년대비증가율, 임금지수 추이, 연 수입 200만 엔 이후의 노동자 수와 비율의 추이, 현금 급여 총액의 사업소 규모별 비교, 세대 당 실질 수입 추이, 자본계수 추이, 설비투자율과 감가상각비, 경기동행지수 추이, 경기회복국면에서의 경상이익과 임금, 투자부문별 주식 보유비율 추이, 자본금 10억 엔 이상 기업의 급여와 이익 처분
 - ▶ (분석대상) 지표별 통계수치
 - ▶ (분석기간) 2000~2014
 - ▶ 설비투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극적. 특히, 투자확대 시, 일본 내에서 시행할지 여부는 불분명
 - ✓ 서비스 경제화가 진행 중이지만 제3차 산업은 산업관련 영향도 계수가 낮아, 대부분의 설비 투자가 기존 설비의 보수나 신규 갱신에 머물러 반드시 고용 확대 로 이어지지는 않음
 - ▶ 경기 회복 국면에서의 기업이익과 임금을 살펴보면
 - ✓ '경상 이익=영업이익+영업외 수익-영업외 비용'으로 계산. 인건비가 증가하면 경상이익이 감소하며, 경상이익이 증가하면 인건비가 감소하는 역의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 있음
 - ✓ 기업 이익→임금 상승→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는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정합적이지 않음



감사합니다

2018. 12. 17

KOSBI 중소기업연구원